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SWEAT 스웨트

: 땀, 힘겨운 노동 :



국립극단

“Co-commissioned by Oregon Shakespeare Festival's American Revolutions
: The United States History Cycle And Arena Stage”

“World Premiere produced by the Oregon Shakespeare Festival”

“This Production of SWEAT was first presented in New York by The Public Theater
Oskar Eustis, Artistic Director Patrick Willingham, Executive Director”

“Originally produced on Broadway by Stuart Thompson and Louise L. G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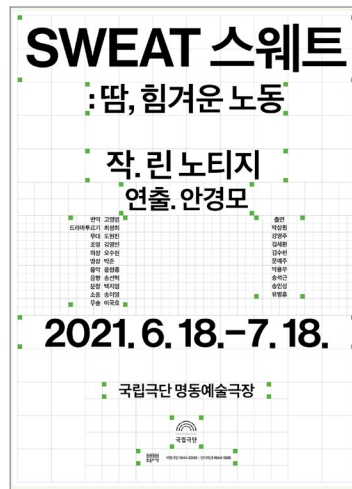
본 희곡은 오레곤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서 세계 초연되었으며,
뉴욕의 더 퍼블릭 씨어터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국립극단 SWEAT 스위트: 땀, 힘겨운 노동

작 린 노티지 Lynn Nottage

번역 고영범

연출 안경모



작가의 편지		2
연출가 인터뷰	세상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 남궁경	4
줄거리		8
출연진		9
작품 이해돕기—1	세상의 모든 레딩을 위하여 ■ 최성희	13
작품 이해돕기—2	〈SWEAT 스웨트〉 타임라인	17
작품 이해돕기—3	연극 〈SWEAT 스웨트〉로 보는 미국의 인종 문제 ■ 염운옥	21
작품 이해돕기—4	작품 속 주요 용어 해설	24
무대디자인 스케치		26
의상디자인 스케치		27
연습 스케치		28
스태프 프로필		30
만드는 사람들		32

린 노티지입니다.

※ 이 편지는 2020년
린 노티지 Lynn Nottage가
〈SWEAT 스위트〉한국 초연을
응원하며 보낸 영상 편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SWEAT 스위트〉의 작가 린 노티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오리건 셰익스피어 축제Oregon Shakespeare Festival’의 의뢰로 미국의 혁명에 대한 연극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혁명에 대해 쓸지 고민하다가 탈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어요. 경기 침체가 미국의 서사를 어떻게 재구성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곧이어 미국의 상황을 한눈에 보여줄 소도시를 찾아보았습니다. 미국 전역 경제 상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곳들이요. 한 친구와 나는 대화도 작품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자녀를 둔 중산층 어머니였던 그녀는 급작스런 곤경에 빠지게 되었죠. 견고한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그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이라는 지역으로 갔고 그 곳에서 1년 반에서 2년간 머물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야기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건 한 무리의 철강 노동자를 만난 후였습니다. 그들은 일하던 공장에서 쫓겨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나누었어요. 그들 중 몇몇에게는 25~30년 동안 일터였던 곳이었죠.

한국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감격스러우면서 동시에 〈SWEAT 스위트〉의 세계적인 호소력이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탈산업화의 결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난민의 유입과 경제적 불안정은 거의 모든 국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는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죠. 영국과 이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이 연극이 소개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 Susan Johann

린 노티지 Lynn Nottage

2019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오른 인물로, 사회 곳곳의 다양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콩고 여성들의 무자비한 학대 역사를 다룬 〈Ruined〉(2009)에 이어, 미국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Sweat〉(2017)로 두 차례의 풀리처상을 수상한 유일한 여성 극작가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는 소외된 이들의 삶에 주목한다. 인종, 성별, 계급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녹여낸 린 노티지의 작품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무대에 오르고 있다..

주요작품

연극 〈Intimate Apparel〉 〈Ruined〉 〈Sweat〉 〈Floyd’s〉 〈Mlima’s Tale〉 〈Fabulation〉 외

수상

2017 풀리처상 〈Sweat〉, 오비 어워드 Best New American Play 〈Sweat〉

2016 Susan Smith Blackburn Prize 〈Sweat〉

2009 풀리처상 〈Ruined〉, 루실 로텔 어워드 〈Ruined〉, 드라마데스크 어워드 〈Ruined〉, 드라마비평가협회 작품상 〈Ruined〉

2005 오비 어워드, Best New American Play 〈Fabulation〉

외 다수

세상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진행·정리 남궁경

〈SWEAT스웨트〉는 비교적 근래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지요. 작품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또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런 배경의 특성 때문인지 계속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 이 작품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시사하듯이 우리의 삶은 이미 세계화되어 버렸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대단히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비교의 관점으로 봐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미국만의 특수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아니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방식으로 작품에 접근하기 보다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레딩이라는 지역, 그 안의 공장과 bar라는 공간들이 한국에 있는 어떤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최대한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과는 다른 언어나 명칭, 이름들 때문에 배경이 미국이라는 인식을 버릴 수는 없겠지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는 저들만의 얘기가 아닌 ‘우리’ 얘기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우리와 다른 지점을 ‘비교’해서 보는 맥락과 ‘보편성’이라는 맥락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 현실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배경에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과의 연계성, 유사성을 갖는다는 보편성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좁게는 인간

안경모 연출가 인터뷰

※ 본 인터뷰는
2020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자유기고가

안경모 — 연출

인간 본성과 심리를 섬세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며 묵직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감각을 선보여온 연출가. 주요 작품으로는 현대인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위로를 전한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삶의 근원적인 희망에 대한 질문을 던진 2012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작 〈그리고 또 하루〉, 2007 한국연극 BEST 7으로 선정되며 그 해 연극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연극 〈해무〉 등이 있다.

주요작품

〈브레이크〉 〈진실X거짓〉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해무〉 〈그리고 또 하루〉 〈돌아서서 떠나라〉 〈살〉 〈그대를 속일지라도〉 〈늙은 자전거〉 〈갈삼봉뎐〉 〈내일은 천국에서〉 외

수상

2012 서울연극제 대상
〈그리고 또 하루〉
2007 한국연극 베스트 7 〈해무〉
2006 제27회 서울연극제 인기상
〈내일은 천국에서〉

관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위계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된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작품에는 노동과 인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위계가 드러나지요. 노동에서의 위계는 신자유주의적인 체제 안에서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노동력의 상품화, 그리고 화이트칼라와 블루

칼라, 블루 칼라 안에서도 정규직과 대체인력 등과 같이 계층을 끊임 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최상층에 있는, 질서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갈등의 대상에서 빠져버린 채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갈등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이에요. 작품에서는 여기에 인종 문제까지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인종이 인간이 상품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위계성을 강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비단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 철강노동자의 영역에 국한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어디를 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는 무수한 갈등이 때로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섞여 있습니다. 딱히 등장인물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안타까운 편견과 편가르기, 인종에 대한 차별이 드러나고요. 특히 인종차별은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갈등 요소인데 막상 인종을 표현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연극적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사회가 좀더 다민족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인종 배우들을 포함할 정도가 된다면 이 작품도 좀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해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인종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국내에서 잘 공연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이유로 흑백갈등을 담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이 작품이 어떤 면에서는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사회도 어느새 다인종, 다민족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인종문제는 어찌 보면 미국사회보다도 더 내밀하게 위계화 된 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사유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낸 명칭이 스티그마, 즉 낙인찍기인데, 태생적으로 타고난 피부색이 어떻게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 등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한 개념이에요. 설명하자면 인물이 인물에게 구체적으로 멸시와 모멸을 안기는 순간에 대사와 시각적 표현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인데요, 그 순간이 닥쳐오기 전에는 인종이 걸로 드러나지 않아요. 낙인 전까지는 인종이 걸로 드러나지 않다가 모멸의 순간 인물의 얼굴 등에 검은 페인팅이 추가되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이 인종을 인식하는 순간의 충격을 인물의 모멸감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차별을 받는 인물들에 있어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찾아내는 것이 낙인찍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갈등의 중심에 트레이시가 있는데요, 모순되기도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지요. 트레이시가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도시의 백인 노동자로서 나름의 기득권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에 비해 더욱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레이시의 이중적인 모습은 사실 인간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면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으니까요. 트레이시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트레이시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데다가 자기우월적인 느낌의 인물이라는 하지만 약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스스로 약인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모순성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지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관객들이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거나 어딘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시아는 어릴 적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의 내성, 면역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트레이시는 그게 없는 거죠. 애초부터 백인 노동자라는 좀더 우월한 지위에서 자란, 즉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 허물어지면 극단적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건데, 그 모습 자체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초반에 배우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트레이시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강한 외면의 모습과 달리 내면은 여리고 공허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신시아는 반대로 외면은 여러도 내면은 강했으면 좋겠다고 것이었어요. 이야기의 흐름상 강하고 거친 모습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물 표현의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시아는 흑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트레이시보다 좀더 아래에서 시작했지만 항상 좀더 나은 것을 꿈꾸는 인물입니다. 트레이시와 주된 갈등을 빚는 인물로 그려지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시아와 트레이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들 모두와 대비될 수 있는 인물은 바텐더 스탠으로 보입니다. 노동일선에서 물러난 스탠이 제3자의 시선, 즉 상황에 대한 객관화된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들 당연한 문제만을 황급히 쫓는 동안 이 모든 것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스탠의 회생을 담보로 구성된 결말의 화해는 아쉬움에 가까운 여운을 남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저는 이 작품의 결말에 이르러서 ‘세상이 바뀐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타자에 대해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로부터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로부터 결말이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스탠은 인물 모두에 대한 지지자, 관찰자, 만인의 친구, 연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가 등장하는 인물들을 옆에서 품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의 종국에 스탠이 쓰러지는 자체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심터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에반과 아이들-크리스, 제이슨-의 대화에서 드러나듯 사실 마지막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새로 시작하는, 일종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시작점. 그렇게 오스카에게도 다가가 보려고 해보고, 스탠을 조금씩 도우면서 끝나고는 있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 조금은 더 상징적인 장면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오스카가 스탠을 돌본다고 말할 때 그 ‘돌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오스카가 스탠을 돌보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결국 스탠이 계속 그곳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여기서의 노동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돈벌이로서의 노동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극을 관통하는 주제로서 노동이라는 의미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일터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죠. 노동을 상실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극단적인 심리적인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사회학자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삶의 동기가 사라진 ‘문화적 진공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오스카가 스탠을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은 스탠이 아직 노동을 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제이슨이 마지막에 스탠을 도와서 걸레질을 하려다가 직감적으로 이것이 스탠의 일을 빼앗는 행위라고 깨닫고, 다시 스탠에게 걸레를 넘겨주는 장면을 추가했어요. 이를 통해 누군가를 위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그가 그의 노동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진정한 화해는 내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사과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의 바Bar. 스무 살 언저리부터 같은 공장에서 일해 온 신시아와 트레이시는 동료 제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지만 어딘가 냉랭한 분위기가 감돈다. 신시아가 관리자로 승진하면서 같은 자리에 지원했던 트레이시와 불편한 사이가 되었던 것.

갈등은 공장 라인이 순식간에 폐쇄되면서 절정에 달하고, 두 사람의 아들 크리스와 제이슨마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한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의 삶과 오랜 연대가 녹아 있는 그 바Bar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Cynthia is promoted to supervisor after silently enduring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as well as all sorts of humiliation. Her sense of accomplishment is short-lived however, as it is left to Cynthia to deliver layoff notices to her colleagues when the company decides to reduce expenses. They used to comfort each other over after-work drinks, but now Cynthia's friends condemn her from behind the picket line. She must prove that her choice is not an act of betrayal: *"Remember, one of us has to be left standing to fight."*





박상원 Park, Sang-won

스탠 Stan

연극

〈박상원의 모노드라마, 콘트라바쓰〉 20 | 파트리크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고곤의 선물〉 14 | 에드워드 담슨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레인맨〉 10 | 레이먼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세일즈맨의 죽음〉 05 | 비프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다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3/10/9 | 줄리안 마쉬역 | 디큐브아트센터 외

〈에비타〉 11 | 후안 페론 | LG아트센터

〈벽을 뚫는 남자〉 06 | 듀티올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99/80 | 빌라도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
외 다수



송인성 Song, In-seong

신시아 Cynthia

연극

〈터널구간〉 20 | 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이름 없는 꽃은 바람에 지고〉 19 | 광대 | 일본 토가무라_씨어터 올림픽 초청작

〈하녀들〉 18 | 끌레르 | 씨어터 송

〈깊은 밤 별이 총총〉 18 | 고고 | 씨어터 송

〈그녀들의 집〉 15 | 막내 딸 | 씨어터 송

〈서클퍼도 커튼콜〉 12 | 유정란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맹진사댁 경사〉 09 | 입분 역 | 명동예술극장

〈Strange Land〉 09 | 여자 | 호주 멜버른 예술극장
외 다수



강명주 Kang, Myung-joo

트레이시 Tracey

연극

〈인간이든 신이든〉 21 | 여자 | 선돌극장
 〈SWEAT 스웨트〉 20 | 트레이시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코리올라너스〉 20 | 볼럼니아 | KOCCA콘텐츠문화광장
 〈히스토리 보이즈〉 19 | 린 톿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피와 씨앗〉 18 | 소피아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먼지섬〉 14 | 여자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천국으로 가는 길〉 13 | 적십자 대표 | 소극장 판
 〈말들의 무덤〉 13 | 박광자 할머니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다수



문예주 Moon, Ye-ju

제시 Jessie

연극

〈X의 비극〉 21 | 안도희 | 소극장 판
 〈스카팜〉 20 | 아르강뜨/네린느 | 명동예술극장 외
 〈불꽃놀이〉 20 | 다희 가이드 외 | 소극장 판(온라인 극장)
 〈화전가〉 20 | 금실이 | 명동예술극장
 〈보이 갯츠 길〉 17 | 테레사 비델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맘모스 해동〉 14 | 부인 |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 외
 〈당통의 죽음〉 13 | 줄리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꿈속의 꿈〉 11 | 보희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다수



김수현 Kim, Soo-hyun

브루시 Brucie

연극

〈SWEAT 스웨트〉 20 | 브루시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20 | 형진 | 백성희장민호극장

〈킬로로지〉 18/19 | 알란 | 아트원씨어터 2관

〈진실X거짓〉 18/19 | 미셸 | 아트원씨어터 2관 외

〈백치〉 18 | 로고진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외

〈스테디 레인〉 17 | 대니 | 아트원씨어터 3관

〈데스트랩〉 17 | 시드니 브릴 | 아트원씨어터 1관

〈리차드 2세〉 14 | 리차드 2세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외 다수



유병훈 Yoo, Byung-hoon

에반 Evan

연극

〈SWEAT 스웨트〉 20 | 에반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나는 광주에 없었다〉 20 | 외판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리어외전〉 20 | 글로스터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알리바이 연대기〉 13/19 | 사촌형님 외 | 소극장 판 외

〈나는 살인자입니다〉 17/19 | 다역 | 소극장 판 외

〈아라비안 나이트〉 18 | 칼릴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다수



송석근 Song, Suk-geun

크리스 Chris

연극

〈X의 비극〉 21 | 강명수 | 소극장 판
 〈햄릿〉 20 | 버나도 외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SWEAT 스웨트〉 20 | 크리스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문신〉 17 | 파울 | 연주소극장
 〈짬뽕〉 17 | 백만식 | 신도림 프라임아트홀
 외 다수

뮤지컬

〈서울의 달〉 16 | 취객 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박용우 Park, Yong-u

제이슨 Jason

연극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오감독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잘자라랄라〉 19 | 2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3/18 | 박용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그들의 적〉 17 | 사카모토 |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개인의 책임〉 17 | 기창 | 복합문화공간 연희정원
 〈세일즈맨의 죽음〉 16/17 | 해피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외계인들〉 15 | 재스퍼 | 소극장 판
 〈타조소년들〉 14/16 | 블레이크 | 소극장 판
 외 다수



김세환 Kim, Se-hwan

오스카 Oscar

연극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서양화 전공 C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파우스트 엔딩〉 21 | 바그너 외 | 명동예술극장
 〈불꽃놀이〉 20 | 민수 프루바 외 | 소극장 판(온라인 극장)
 〈스푸트니크〉 19/20 | 소년 군인 | 나온씨어터 외
 〈록앤롤〉 18 | 스티븐 외 | 명동예술극장
 〈4Four〉 17-18 | R | 혜화동 1번지 외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16 | 윤관석 외 | 연주소극장 외
 〈잔치〉 16 | 진옥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다수

세상의 모든 레딩을 위하여

최성희 _____ 드라마투르그,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세일즈맨의 죽음〉 윌리 로먼의 대사. 〈세일즈맨의 죽음〉이 발표되었던 20세기 중반 유통업과 광고 산업의 발달로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면 21세기 미국에서는 자동화와 세계화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1. 버려진 오렌지 껍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 레딩 Reading, 여기 20년 넘게 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해 온 사람들이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고, 아들의 직장이기도 한 공장이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문을 걸어 잠갔다. 여러 세대에 걸쳐 피땀으로 쟁취한 임금과 복지 혜택의 반 이상을 삭감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평생 이를 악물고 지켜온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예전처럼 노조를 통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사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경제 규제를 철폐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덕분에 경영진에게 새로운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노조가 말을 안 들으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남미로 공장을 통째로 옮기면 된다. 힘을 잃은 노조는 와해되고 이들을 지탱해 주던 가족과 공동체가 파괴된다. “알맹이만 쏙 빼먹고 버려진 오렌지 껍질”¹⁾처럼 폐쇄된 공장이 즐비한 녹슨 도시에 남겨진 노동자들은 분노와 수치심을 잊기 위해 술과 마약에 의존하고 한때 미국 산업의 요지였던 레딩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로 전락한다. 〈SWEAT 스웨트〉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픽션도 디스토피아 영화도 아닌 2000년대 초반 미국 러스트 벨트 Rust Belt(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작가 린 노티지 Lynn Nottage는 2년 반 동안 레딩 주민들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다.

2.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우물이 있다

그러나 〈SWEAT 스웨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극이 아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신탁이 아닌 ‘인간’에 대한 연극인 것처럼, 〈SWEAT 스웨트〉의 화두는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이다. 고전 비극이 가장 완벽한 인간조차 피할 수 없는 파국에 대한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면, 현대 비극은 사회의 관심에서 밀려난 하찮은 삶에서 존재의 빛을 발견한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면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¹⁾ 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저마다 ‘운명’에 저항하는 내밀한 방식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추락이 아닌 비상의 벡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대 비극의 역설적 미학이다. 20세기 비극 이론가들의 주장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 비극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비극의 함수가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의 비극’을 강변했던 아서 밀러의 극작술이 이 작품에 겹쳐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프랑스의 사상가 앙리 드 생시몽은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행복”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WEAT 스웨트〉에서 우리는 한 뭉치의 노동자들이 아닌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과 심리적 지형을 가진 고유한 인간들을 마주한다. 노동자라는 동일한 표상 아래 존재하는 이들의 개별성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픈 상처와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가장 친한 친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인종 차별의 상흔일 수도 있고, 헛헛한 웃음으로 채 가려지지 않는 가족의 죽음일 수도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사랑일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깊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연과 마주하면 알 수 없는 공포로 몸이 떨리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SWEAT 스웨트〉의 인물들은 자신의 우물을 문학적 언어나 철학적 의미로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설이 난무하는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언어 속에 블루칼라blue-collar 혹은 레드넥redneck이라는 획일적 정체성으로 약분하거나 통분될 수 없는 각자의 우물이 드러나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하나의 세계로 볼 수 있는 창이 열린다.

3. 노동 생태계의 파괴와 회복

작가가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공장이 아닌 술집을 주 무대로 선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둘씩 모여드는 단골 술집은 고된 노동과 공장의 통제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는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다. 극의 초반 트레이시의 생일파티 장면에서 다양한 인종, 세대, 젠더를 포용하고 연결하는 술집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그려진다. 그러나 술집은 외부의 격랑으로부터 차단된 안전지대가 아니며 처음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무대를 엄습하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술집이라는 소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거시적 환경이자 배후로 제시된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애환을 나누던 술집의 생태계가 극이 진행되면서 점차 외부의 힘에 의해 균열되고 붕괴되기 시작한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잠재해 있던 역사적, 심리적 갈등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술집은 해묵은 앙금과 인종적 편견이 극단으로 치달는 폭력적 장소로 변모한다. 여기에 가장 값싼 도피처인 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다.

회사는 노동자 간의 계층적 분열과 인종적 반목을 조장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간인 노조를 무력화시켜 놓고는 결국 공장을 폐쇄한다. 일자리도, 가족도, 공동체도 잃어버린 이들이 무대 위에서 절규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고. 그러나 그 과정에 참여한 그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에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작가는 극의 마지막 순간에 그 개인들의 성찰과 선택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내면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인종의 세 젊은이가 침묵 속에서 ‘함께’ 다음 선택을 고민하는 마지막 장면은 공동체의 재건과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불확실성과 미완성이 주는 묘한 위안과 희망에 힘입어 관객은 세상의 모든 레딩의 소생을 함께 응원한다.

4. 감정을 경유한 이성

관객의 공감과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티지의 작품은 포스트모더니즘 연극에 익숙해진 비평가들로부터 감정적이고 감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분명히 그의 연극은 쿨하지도, 힙하지도, 아방가르드하지도 않다. 시간 순서를 뒤섞어 결과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무엇’보다 ‘왜’에 집중하게 한다든지, 춤과 노래를 삽입하여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등의 서사극적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작품의 뿌리는 사실주의 전통에서 양분을 흡수한다. 이러한 사실주의적 특징에서 보다 넓은 관객층과 소통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브레히트를 모델로 삼고 극작을 시작한 노티지가 결국 서사극과 근본적으로 결별한 것은 공감과 감정이입이 빠진 ‘거리’와 ‘소외’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노티지의 연극에서 관객은 다양한 감정과 상충하는 입장들 사이에서 직접 갈등을 경험하면서 종합적인 이성적 성찰의 단계로 나아간다. 감정을 경유한 이성은 더 단단하고 동시에 더 유연하다.



5. <SWEAT 스웨트>와 두 번의 대선

<SWEAT 스웨트>는 2015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오레곤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서 초연되었다. 이듬해 예상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충격에 빠진 진보주의자들이

그를 지지한 백인 노동자 계층을 ‘개돼지’라고 비난하는 와중에 뉴욕 무대에 올려졌다.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는 미국 중산층의 몰락은 민주당의 ‘자유’와 ‘포용’ 정책 때문이라며 그들의 분노를 부채질했고 그 과정에서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역시 증폭되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로 추락했던 러스트 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은 2016년 대선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외치는 트럼프에게로 돌아섰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고통과 배신감을 선구적으로 무대화한 <SWEAT 스웨트>는 일종의 예언적인 연극이었다.

그러나 이 연극이 무너진 중산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뉴욕 공연 뒤에 진행된 작가와의 대화에서 노티지는 말한다. 레딩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흑인 여성인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겼던 백인 남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다고. 그들의 서사가 어느새 오랜 차별과 소외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흑인 청년의 좌절과 분노를 닮아 가고 있었다고. 이제는 인종과 젠더의 차이를 넘어 자연/인간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본의 무차별적 지배에 함께 대항할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를 위해 서로의 차이를 ‘판단judgement’이 아닌 ‘호기심curiosity’으로, 편견이 아닌 대화와 탐구로 접근해야 한다고. 두 해를 넘기며 이어진 레딩 주민들과의 인터뷰와 그 결과물인 이 작품 자체가 그 말의 생생한 증거이다. 4년 뒤 2020년 대선에서 레딩이 속한 벅스 카운티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었다.

6. 미완의 꿈/땀

린 노티지가 작품의 제언으로 흑인 시인 랭스턴 휴즈의 “미국을 다시 미국답게”(1938)를 선택한 것은 당시 트럼프 캠프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휴즈의 원작이 담고 있는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휴즈에게 다시 되돌아갈 ‘위대한 미국’ 따윈 없다. 처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열망하는 평범한 이들의 꿈이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 꿈마저 왜곡되고 퇴색되면서 “미국은 한 번도 미국이었던 적이 없다.” 스스로를 ‘영원한 낙관주의자’로 칭하는 노티지에게 연극은 그 미완의 꿈을 ‘지금, 여기’로 소환하는 희망의 씨앗이다.

SWEAT ‘땀’은 노동이자 놀이인 연극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실시간, 현장, 살아있는 배우와 관객으로 이루어진 연극에서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미완의 상태가 연극이 수 천 년 동안 계속되는 이유일 것이다. 모든 연극은 미완의 꿈을 향한 ‘땀’이다. 그로 인해 매번의 공연은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해진다. 셰익스피어가 런던에서 극작가로 활동하던 시기 1593년과 1603년 두 차례나 역병으로 극장이 폐쇄되었다. 공연이 중단되었던 시기에 그는 새로운 극작술을 실험하면서 <오셀로>나 <리어왕> 같은 역작을 집필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연극(인)의 흐르는 땀이 중단된 적은 없다. 어려운 시기 마스크를 쓰고 무대 위와 뒤에서 두 배, 세 배로 땀 흘려주신 <SWEAT 스웨트> 팀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SWEAT 스웨트〉 타임라인

- 뉴스
- 장별 줄거리

미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SWEAT 스웨트

2000년 미국경제의 호황과 심화된 빈부격차 ▶ 붕괴의 시작

- 클린턴 정부 시기 안정적 경제성장: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과 세계화(NAFTA* 등), IT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전체 부 증가
- 1995-2000: 사상 최장의 경제 호황.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
- 테크버블*: IT기업의 추가폭등
- 30년 만의 최저 실업률, 유색인종의 실업률 하락
- 9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업의 급속한 쇠퇴로 인한 중산층 붕괴의 시작
- 임금 불평등 및 빈부격차의 심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국가의 선별적 개입,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세금감면, 복지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및 금융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정책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해 체결한 협정. ‘3개국 간의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단계적 철폐’를 골자로 한다.

*테크버블 IT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관련 주식이 급격히 상승한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친 거품 경제 현상을 일컫는다.

1막 2장

2000. 1. 18

-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이 미국 내의 가난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 간의 수입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 트레이시의 생일. 신시아는 관리직에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1막 5장

2000. 4. 17

- 테크버블이 터지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기록적으로 617 포인트 하락하고 난 사흘 뒤.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가 세계은행과 IMF 간의 회합을 방해한다.

▪ 트레이시는 올스테드에서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낸 견습인력 구인공고를 보게 된다.

미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 2000년 중반, 테크버블이 터지면서 주가 폭락
- 기업 주도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 양상에 대한 항의 시위 발생
- 200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가 43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 이듬해 발생한 9/11 이후 경기 침체의 가속화
-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으로 2000년 말 6.5%였던 금리가 2003년 초 1%까지 떨어짐

SWEAT 스웨트

1막 6장

2000. 5. 5

- 미국의 실업률은 30년 이래 가장 낮은 3.9%로 내려갔다.
- 레딩 시는 천만 달러에 이르는 적자 때문에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
- **제시의 생일. 트레이시는 관리자가 된 신시아에게 올스테드의 인원 감축 계획에 대해 묻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테크버블 이후 경기 악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실시한 저금리 정책과 함께 담보대출mortgage loan 대상이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대출자로까지 확대된다.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담보(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대출자가 파산해도 금융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금융권에서는 서브프라임subprime, 즉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과 고위험 파생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했고, 2007년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쌓인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다. 2008년에는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2008년 초대형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서다

- 워런 버핏,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상황’에 비유
- 2008년 9월 부시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미국 금융권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대국민 TV 연설 진행



- 하원에서 구제금융안 부결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 지원방안으로 공적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인수해 시장의 신용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다우지수 폭락
- 구제금융안 결렬에 대한 위기의식과 실망감 팽배
- 다수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임시직, 단순 서비스직으로 이직
- 소득 격차 심화와 미국 중산층 붕괴의 가속화

1막 1장과 7장 사이 ‘전환의 장’

2008.9. 24

-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월 스트리트에 대한 7천억 달러의 긴급구조금융을 며칠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전체 미국 경제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암울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경고한다.

1막 1장

2008. 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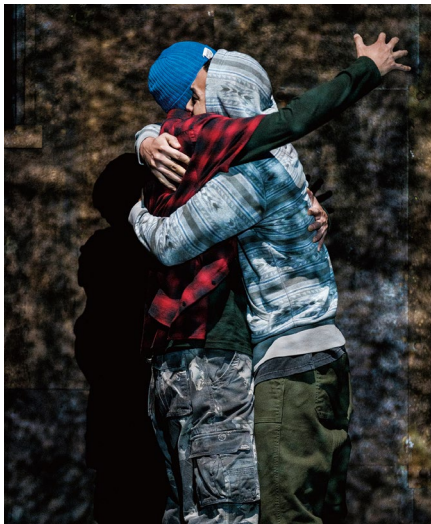
- 제63회 UN 총회가 개최된다. 다우존스 제조업 평균 지수가 778.68포인트 하락하면서 주식시장 역사상 하루 낙폭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
- 레딩 주민들이 올드 드라이 로드 농장에서 열리는 연례 가을 페스티벌에서 신선한 애플 사이다를 맞본다.

- **복역을 마친 제이슨과 크리스가 우연히 마주친다.**





- 2008년 10월 상원에서 구제금융안 통과
- 다우지수 폭등과 폭락 반복
- 시장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널뛰기 장세 지속
- 국가가 나서서 보호한 금융권과 달리 러스트 벨트의 무너진 중산층은 정치권 및 언론으로부터 서서히 잊혀가는 존재로 전락
- 2008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정권에서 경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화당의 존 매케인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에게 패한다.



2막 1장

2008. 10. 13

- 은행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이 전 지구적으로 승인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다우 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 수치인 936포인트 상승을 기록한다.
- 펜실베이니아 주의 벅스 카운티에서는 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 조치를 당한 가구 수가 전년도보다 111% 상승한다.
- 제이슨과 크리스는 각각 트레이시와 신시아의 집을 찾아간다.
- 트레이시는 실직상태가 지속되면서 약에 중독되었고, 신시아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잃어버리고 임시직, 단순서비스직으로 어렵게 살아간다.

2막 7장

2008.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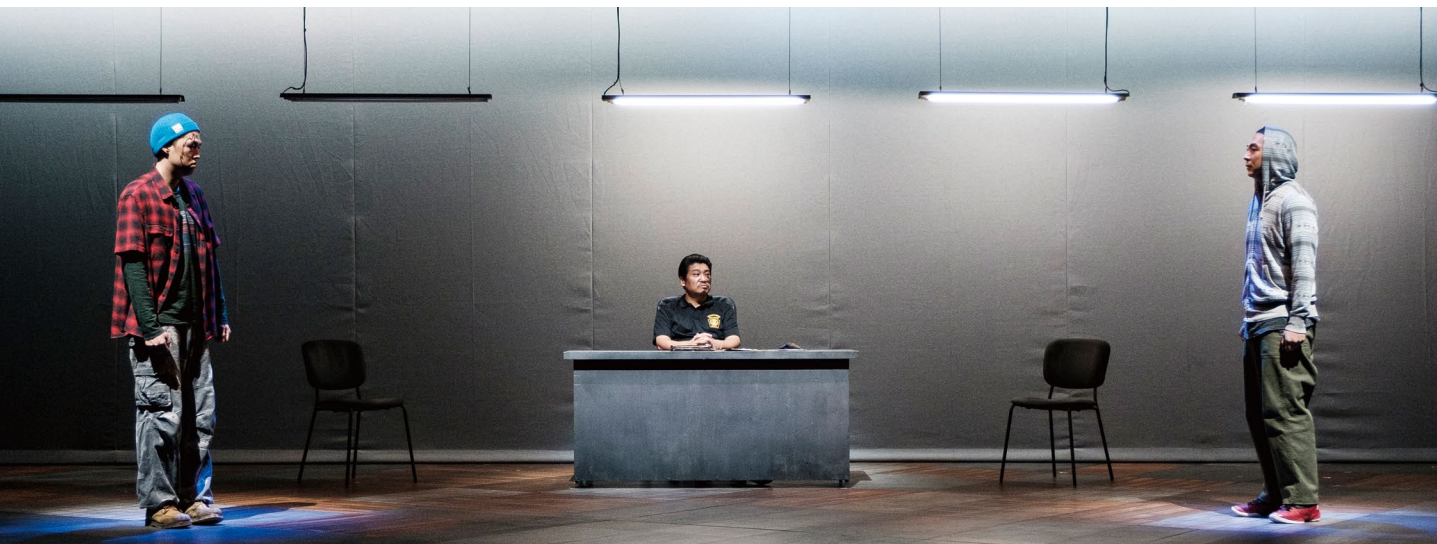
- 바그다드와 워싱턴은 2012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약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733포인트 폭락했는데,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존 맥케인과 버락 오바마는 뉴욕주 햄스테드에 위치한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마지막 TV 토론을 가진다.
- 연방검찰은 레딩에서 일반주택 여러 채를 실내 대마초 농장으로 바꿔 운영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마약 거래조직을 기소한다.
- 에반은 크리스와 제이슨이 과거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크리스, 제이슨, 오스카 세 젊은이가 한곳에 모여 다음 단계로 나갈 방법을 고민하며 극이 끝난다.

연극 『스웨트』로 보는 미국의 인종 문제

염운옥 _____ 연극평론가, 경희대 연구교수

『스웨트』의 작가 린 노티지는 미국 흑인 여성이다. 2017년 『스웨트』로 두 번째 플리처상을 수상한 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노티지는 미국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경험을 소개했다. 어느 날 노티지는 두 자녀와 함께 물건을 사고 상점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그때 한 백인 청년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 노티지가 “이보세요”라고 항의하자, 그 청년은 “세상에나, 거기 당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노티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순간 노티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분명 거기에 서 있었는데도 말이다. 별일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소한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런 일은 아프리카 아메리칸에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헨리 루이스 게이츠 하버드대 교수는 2009년 자택 앞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열쇠를 잃어버린 그가 자택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자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실랑이가 오가다가 체포당한 것이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려 했다면 총에 맞았을 것”이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어떤 교



육을 받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한 인간을 피부색으로만 환원해 버리는 행위가 바로 인종 차별이다. 인종차별은 엄연히 미국 사회의 구성원인 아프리카-아메리칸을 투명인간, 그림자인간 취급하고, 강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심지어는 여차하면 폐기 가능한 생명으로 전락시킨다. 현재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BLM 운동의 외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흑인’으로서 이런 존재론적 경험에서 출발하는 노티지의 작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소외된 삶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스웨트』의 경우도 미국 사회의 해묵은 인종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주목한 작품이다. 그런데 노티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고발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보려 한다. 인종차별의 피해자 흑인과 가해자 백인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을 계급의 요소를 도입해 복합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노티지가 집필을 위한 인터뷰 조사 대상지로 선택한 곳은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이었다. 레딩은 러스트 벨트의 쇠락한 산업도시다. 레딩은 철도, 철강, 섬유 산업으로 번영했던 곳이지만 1970년대 후반 철도가 폐쇄되면서 쇠퇴의 길을 들어섰고, 나프타NAFTA로 인한 산업 이전과 본격적인 탈산업화가 현실화되자 빈곤율이 40%에 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빈곤한 도시로 전락했다. 인터뷰에서 노티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레딩도 과거엔 좋았지”와 “그들 눈에 우린 보이지도 않아”였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자’ 취급당하는 것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다. 노스탤지어만 남고 미래를 향한 시간이 멈춘 절망, 열심히 일했으나 일자리를 잃고 극빈자가 돼버린 억울함, 하소연할 데 없는 이들의 분노를 노티지는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공들여 듣고 기록해 창작의 재료로 삼았다.

무대는 한 장면을 제외하고 모두 술집이다. 산타나와 웨어의 음악이 흐르는 낡은 바, 고된 일을 끝낸 노동자들이 한잔 걸치며 하루의 피로를 잊는 곳이다.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인 신시아와 독일계 백인 미국인 트레이시, 신시아의 아들 크리스와 트레이시의 아들 제이슨, 주인공들의 대화는 모두 바에서 이루어진다. 노티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사회적 공간인 바를 무대로 설정함으로써 인종, 계급, 젠더가 교차하는 현실의 역동성을 그려냈다. 또한 바는 세계화의 파괴적 영향에 휘둘리는 울스테드 제련공장의 축소판이다. 바의 매니저 스탠은 독일계 백인 미국인이다. 스탠은 삼대가 공장에 충성하며 일했지만, 기계 고장 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사장은 한 마디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변호사를 보내 고소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흑인’ 신시아와 ‘백인’ 트레이시는 기름밥을 먹으며 우정을 쌓아온 친구 사이이다. 공장라인이 축소되면서 남편들이 일자리를 잃고 알콜중독에 빠지기 전 일한 만큼 돈을 만질 수 있던 시절에는 두 가족이 함께 애틀랜타 시티로 여행을 갔던 추억도 있다. 크리스와 제이슨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크리스는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될 꿈도 꾀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NAFTA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 구조조정과 해고의 압박이 밀려온다. 멕시코에는 미국 월급의 절반만 받고도 16시간 노동할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더욱 교묘한 책략은 신시아를 관리직으로 승진시킨 다음 그녀의 손으로 동료들을 자르도록 한 결정이었다. 인종적 타자 중에서 한 줌의 개인을 뽑아 올려 명예 백인이나 모범적 소수자 같은 타이틀을 주고 백인 주류사회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흑인 여성으로





서 열아홉 살 때부터 온갖 인종차별을 견디며 노동자가 되고 자랑스러운 노조원이 되었던 신시아는 관리직으로 승진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된다. 관리직이 된 신시아의 업무는 60% 임금 삭감이나 집단해고나를 택하라고 동료들에게 통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트레이시와 제이슨, 그리고 아들 크리스를 공장에서 자기 손으로 쫓아내야 했다. 결국에는 신시아도 해고당한다. 고임금자를 해고한 공장에는 바에서 일하는 오스카 같은 라티노 노동자들의 파트타임 노동이 채워졌다.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청년 제이슨과 크리스는 미래가 망가져 버렸다. 제이슨은 백인우월주의자의 문신을 얼굴에 새겼다. 크리스는 이제 대학에 갈 수 없다.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면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놈들 앞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아니 있거나 한 것일까?

『스웨트』는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닷새 전에 초연됐다. 닷새 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런 연유로 『뉴요커』는 ‘스웨트’을 “트럼프 시대를 알리는 기념비적 연극”이라 평했다. 뉴욕 브루클린의 자유분방하고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란 노티지는 당연히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당선은 충격적이었지만 곧 트럼프에게 투표한 백인노동계급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악의적인 방법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그들의 분노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레딩이 속한 벅스 카운티에서 트럼프는 93,094표를 얻어 75,169표를 얻은 힐러리를 이겼다. 8년 전에는 반대였다. 버락 오바마는 벅스 카운티에서 존 매케인을 97,047표 대 80,513표 눌렀다. 지난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또 2012년 재선되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오바마 당선으로 인종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맞아 탈인종 post-racial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8년 임기가 끝난 후 평가는 회의적이었다. 오바마가 위기로 내몰린 미국 경제를 물려받아 고군분투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망스런 결과였다.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는 기대도 많았고 초반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보다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오바마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계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흑인 중산층으로 백인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노티지도 오바마에 비판적인 지식인 중 한 사람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백인들의 반응이었다.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백인들 사이에서는 인종적 반감, 특히 흑인 대통령에 대한 미묘한 반감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백인 유권자들이 공화당 보수 세력을 지지하게 되었다. 인종주의는 궁핍을 먹고 자란다. 실직과 빈곤으로 박탈감과 좌절감에 빠진 백인들이 손쉽게 기댈 수 있는 건 백인우월주의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가 먹혀든 이유다. 2016년 11월, 트럼프의 당선은 백래시의 신호탄이었다.

한국 사회 역시 분노한 사람들이 약자를 혐오하는 현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의 결과 한국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은 높아졌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중소기업과 농어업은 유지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를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여기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모습은 미국 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한국 관객들은 교차하는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스웨트』을 어떻게 볼까 몹시 궁금하다.

작품 속 주요 용어 해설

간접비용

생산비용 중에서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러 경비를 말한다. 관리직 직원의 급여, 보험, 휴무수당, 의료보험 등의 노무관계 제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이와 같은 경비를 직접경비에 합산하여 총 소요경비를 산출한다.

구조조정

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 이 있다.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 은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등이 있다.

김렛 Gimlet

진 베이스로 힘든 하루의 상쾌함을 전해 주는 처방 칵테일로 라임 주스를 넣어 진을 묽게 만든 칵테일

나프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 고 자유 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자유 무역과 경제적 협력을 목 적으로 1992년 체결되었고,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미 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을 바탕으 로 경제 통합을 이루어 거대한 단일 통합 시장을 구축하게 되 었다

노조[노동조합]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노동자들 의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본적 목 적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백인우월주의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함을 타고났다는 인종 관념이다. 다른 우월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민족중심주의에 근 거하며 많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 다. 백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모든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며, 백인우월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몸이나 얼굴에 문신 하기도 한다.

버스보이 Bus Boy

식당에서 웨이터를 돕는接客보조원으로 식사 전·후 식탁 정돈 및 청소를 주업무로 하는 식당 종업원

수퍼바이저 Supervisor

관리감독자라고도 하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월 스트리트 Wall Street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금융 밀집 구역.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로 주식거래소를 비롯하여 여음교환소, 연방준비은행, 기타 유력한 시중 은행들이 집중되어 있어 미국 금융자본의 대명사로 일컫는다.

크랩스 게임 Craps Game

세계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사위 게임으로, 1768년 ‘Craps’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주사위 2개를 이용한 테이블 게임이다.

트랜스포머 Transformers

미국의 장난감 제조 및 판매회사인 해즈브로의 완구 로봇시리즈에서 시작한 로봇 캐릭터. 일본 완구 회사 타카라토미의 완구 시리즈인 변신로봇의 판권을 사들여 미국에서 1984년 새롭게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며 구조에 변화를 주었다. 이후 만화책,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그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2007년에 공개된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 마이클 베이 감독의 미국 영화로도 흥행했다.

파업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요구를 주장하며 작업을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쟁의행위이며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압박수단이 되기도 한다.

피케팅 Picketing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쟁의행위의 이탈자를 설득하거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사용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쟁의행위 방해와 쟁의행위 파괴를 위한 대체고용을 저지하며, 원·재료의 입하 또는 상품출하를 억제하거나 고객의 출입을 통제하려는 데 의의가 크다.

피켓라인 Picket Line

노동 쟁의 때 출근 저지 투쟁을 위해 파업 노동자들이 늘어선 줄

히피 Hippie

196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층을 주체로 하여 시작된 탈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자신의 행복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진부한 물질문명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무엇보다 자유와 사랑을 찾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차림새는 남성엔 장발·수염투성이에 펜던트와 굵은 벨트에 부츠를 신었고, 여성엔 장발·미니스커트에 샌دل 또는 맨발이다.

희망, 그 연약함과 필연에 대하여

도현진
무대디자이너

〈SWEAT 스웨트〉의 무대에는 여러 시간과 관점이 공존합니다.

인물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2000년과 과거의 그날 아래 머물러 있는 2008년.

펜실베이니아 레딩 지역의 술집이라는 구체적 일상과 뉴스로 대변되는 세계의 거대한 흐름,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미국, 인종, 노동의 이야기와 이를 관람하는 2021년 한국의 관객.

이와 같은 중첩을 담아내기 위해 무대 공간은 극의 개별 장소를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틀과 구획된 면을 이용해 일상을 둘러싼 거시사회를 암시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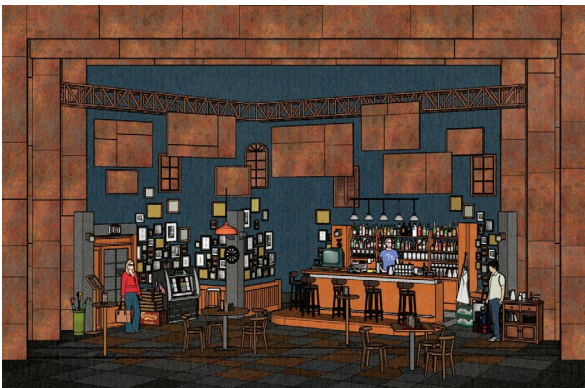
또한 강조된 프로시니엄은 서사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한층 명확히 만들면서

공연이 상연되는 현재 이곳을 의식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길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러스트 벨트의 멈춘 기계처럼 녹슨 삶과 먼지 낀 시간을 투명한 유리병 같은 여백으로 감싸며
앞으로 채워나갈 연약하지만 간절한 희망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편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절실하게, 무대에 깃든 땀방울이 관객의 눈길 안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2000년 바(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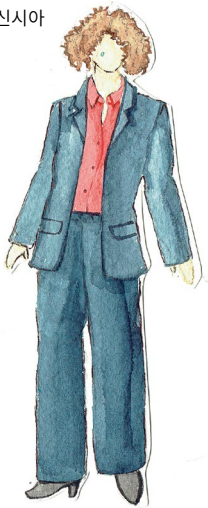
2008년 바(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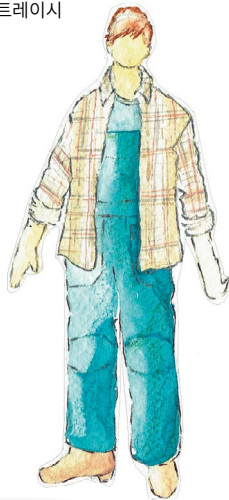
의상 콘셉트

오수현 의상디자이너

신시아



트레이시



제시



스텐



2000년과 2008년을 넘나들며 작품은 진행됩니다.

이 시간차속에 인물들은 일자리를 잃고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인종 차별 문제까지 수면위로 놓이게 됩니다.

의상디자이너는 그 시간차의 사실적인 표현에 더하여

2000년의 의상은 강렬하고 선명한 색감을 강조하였으며, 2008년의 의상은 빛바래고 낡은 질감으로 차별을 두어

극의 흐름과 인물들의 감정적인 변화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루시



에반



크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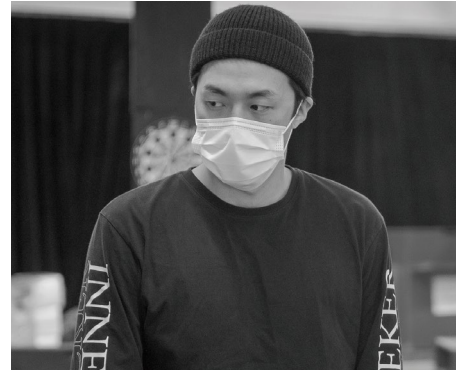
제이슨



오스카







스태프

작—린 노티지 Lynn Nottage

프로필 _ 2페이지

번역—고영범 Koh, Young-Beom

희곡번역 <예술하는 습관> <오슬로> 외

도서번역 <레이먼드 카버: 어느 작가의 생>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I, II>(이승민과 공역), <불안> <별빛이 떠난 거리> 외

작 <태수는 왜?> <이인실> <방문> <애어른 없는 방> <서교동에서 죽다> 외

연출—안경모 Ahn, Kyung-Mo

프로필 _ 4페이지

드라마투르기—최성희 Choi, Sung-Hee

연극 <체어> <투란도트> <사슬> 외

논문 「드라마투르기: 이론 ‘이후’의 페다고지」 「세라 룰 현상과 여성주의 연극의 지형변화」 「Global Utopia and Local Anxiety on the Stage of Korean Musical」 「세계화의 여성주의적 전유: 린 노티지의 『폐허』에 나타난 코스모페미니즘 연구」 외

저서 <아메리카나이제이션> (공저),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공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미학> (공저) 외

수상 2015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루비콘 논문상
2004 한국아메리카학회 우암논문상

무대디자인—도현진 Do, Hyun-jin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허탕> <길삼봉면> <해무> <맹목> <돌아서서 떠나라>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는가> <서툰 사람들> <웰컴 투 동막골> <홀스도메르> <택시드러벌> 외

뮤지컬 <찰리찰리> <젤소미나> <Chat on Love> <찰리브라운> <판타스틱스> 외

무용 <안녕> <판> <Embrace> <무신제> <고대의 향기, 무천·산화가> <기우는 달> 외

음악극 및 연주회 <정악, 천년의 결이 숨쉬는 음악> <황진이> <영원한 사랑 춘향이>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외

조명디자인—김영빈 Kim, Young-Bin

연극 <완벽한 타인> <박상원의 모노드라마, 콘트라바쓰> <오이디푸스>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시간들> <템플> <소> <진실X거짓> <신인류의 백분토론>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리차드 3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벚꽃동산> <로미오와 줄리엣> <올모스트 메인> 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붉은 정원> <빠리 뺑뺑> <금란방> <위대한 캣츠비> <공동경비구역 JSA> <인당수 사랑가> <모차르트 오페라 략> <요셉 여메이징> <여싸신> 외

오페라 <카사노바 길들이기> <골든오페라> <토스카>

무용 <COSOMS> <종천지애> <지달립서> <전미숙무용단> <바실라>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풍속화첩> 외

기타 <판타지아 1950> <엘리에스 일루션> <적벽가> <남창가곡> <노쓰코리아> 외

수상 2017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조명

의상디자인—오수현 Oh, Su-Hyun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 <줄리엣과 줄리엣>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외

영상디자인—박준 Park, Jun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운현궁 오라버니> <당통의 죽음> <동동 낙랑동> <봄날> 외

뮤지컬 <시티오브엔젤> <피맛골 연가> <해를 품은 달> <드라큘라> <드림걸즈> <뉴시스> <도리안 그레이> <나폴레옹> <설록홀츠> <모래시계> <광화문연가> <메피스토> 외

오페라 <나부코> <아이다> <루살카> <토스카> 외

무용 <강선영, 불멸의 춤> <아름다운 조우> <미롱> <춘향> 외

수상 2019 뮤지컬어워드 무대예술상

음악감독—윤현중 Yoon, Hyun-Jong

연극 <물고기 인간>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내 이름은 강> <상하이 알리바이> <베를린 알리바이> 외

무용 <간 때문이야!> <섬> <회귀선>

다큐멘터리 씨어터 <캣트라인> <어닝쇼크> <쌈뽕거리를 가져오세요>

수상 2018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무용 선정

2017 서울미래연극제 베스트3 스텝상

2015 PAFe 2015 : 신작낭독공연 최우수상

2012 천차만별 콘서트 ‘새로운 소리로 흐르다’ 우수상

2009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월드뮤직상

음향디자인—송선혁 Song, Sun-Hyuck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 <미저리> <트레인스포팅>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한여름 밤의 꿈> <햄릿> <친정엄마> <신호보전> <까사발렌티나> <택시드러벌> 외

뮤지컬 <앨렉산더> <또!오해영> <광염소나타> <아킬레스> <미오 프라텔로> <라 레볼루션> <유진과 유진> <난설> <너를 위한 글자> <해적> <루드워> <명동로망스> <블루레인> <김종욱 찾기> <더 스톤즈> <찰리 찰리> <원스어폰어타임 인 해운대> <최후진술> <미온더송> <그날 이후> <경성 판싱권> <로미오와 줄리엣> 외

분장디자이너—백지영 Baek, Ji-Young

연극 〈파문친 아이〉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더팜〉 〈인간이든 신이든〉 〈콘센트-동역〉 〈레드〉 〈엄마 이야기〉 〈텍사스 고모〉 〈손님들〉 〈얼굴도둑〉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겨울이야기〉 〈시련〉 〈토막〉 〈이영녀〉 〈유리동물원〉 〈단테의 신곡〉 〈반신〉 외

뮤지컬 〈나빌레라〉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 아씨들〉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마리아 마리아〉 〈신과 함께_저승편〉 〈빈센트 반 고흐〉 〈파리넬리〉 〈파가니니〉 〈살리에르〉 외

소품디자이너—송미영 Song, Mi-Young

연극 〈월화〉 〈끝 수 없는 불꽃〉 〈성〉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가족〉 〈고모를 찾습니다〉 〈보물섬〉 〈방랑〉 〈맨 끝줄 소년〉 〈춘천 거기〉 외

뮤지컬 〈나빌레라〉 〈향화〉 〈춘향전〉 〈추사〉 〈미스트〉 〈홍도〉 〈메밀꽃필무렵〉 〈이른 봄 늦은 겨울〉 〈소서노〉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윤동주, 달을 쏘다〉 〈놀이〉 〈팬텀〉 〈더 씽 어바웃 맨〉 외

무용 〈해적〉 〈마타하리〉 〈호두까기 인형〉 〈어미〉 〈방랑〉 외

무술감독—이국호 Lee, Kuk-Ho

[무술감독]

연극 〈햄릿〉 〈왕위 주장자들〉 〈헨리 4세〉 〈줄리어스 시저〉 〈칼집 속의 아버지〉 〈전쟁터를 훑은 여인들〉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목란언니〉 〈로미오와 줄리엣〉 외

[배우 및 무술감독]

연극 〈깨끗하고 연약한〉 〈생존도시〉 〈백중사 이야기〉 〈이기동 체육관〉 〈십이야〉 〈로맨티스트 죽이기〉 〈뷰티풀 번아웃〉 〈칼로막베스〉 〈강철왕〉 〈병신 3단 로봇〉 〈마리화나〉 〈로미오와 줄리엣은 살해당했다〉 〈젤소미나〉 〈리아〉 〈한 여름 밤의 꿈〉 외

조연출—황준형 Hwang, Joon-Hyung

[연출]

연극 〈박상원의 모노드라마, 콘트라바쓰〉 〈서푼짜리 오페라〉 〈화성은 빨강지 않다〉 〈두드려라, 맥베스!〉 〈천월 전기〉 〈무협활극 쏘씨고아〉 〈Monster_고백〉 〈열대의 안나〉 외

뮤지컬 〈만경을 넘어, 하늘을 오르다!〉 〈촉석산성 아리아〉 외

연희극 〈세요고의 노래〉

오페라 〈The telephone〉

[조연출]

가극 〈금강〉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해무〉 외

수상 2016 중국 광저우 국제 등광제 최우수작품상 〈천월전기〉



만드는 사람들

출연

박상원 스탠	문예주 제시	유병훈 예반
강명주 트레이시	박용우 제이슨	(이상홍·박준 뉴스 아나운서 목소리)
김세환 오스카	송인성 신시아	
김수현 브루시	송석근 크리스	

스태프

작 린 노티지 Lynn Nottage	무대진행 최성관 최정환 최소영 김본이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번역 고영범	영상시스템엔지니어 천주연	응용디자이너 RE01_대표 김리원
연출 안경모	의상진행 전요나 심새늘	홍보사진 북촌에서_대표 이강물
드라마투르기 최성희		홍보영상 602STUDIO_대표 김영준
	무대제작 무대사랑_대표 박인석	연습사진 나승열
무대 도현진	의상제작 CST_대표 김인식	공연사진 김신중
조명 김영빈	소품제작 S.FACTORY_대표 송미영	옥외광고 애니애드_대표 윤한국
의상 오수현	영상장비임차 ㈜모카스튜디오_대표 박준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영상 박준		프로그래밍 디자인 허미경
음악 윤현중	작곡 진수영	프로그래밍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음향 송선휘	연주 안원석(더블베이스) 진수영(피아노)	
분장 백지영	녹음 스튜디오 세나클_대표 권영훈	티켓 김보배
소품 송미영		매표 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무술 이국호	조명팀 홍유진 이상혁 서승희 곽태준 유보민 윤라연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정하영 정주연 윤희린 이상민 윤여은	하우스 안내원 이지은 이지예 정해룡 임예은 박선준
조연출 황준형	음향팀 박상준 김수현 김수경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고정윤 채지성 김소희
안무트레이닝 이경은	영상팀 모카스튜디오_류병현 왕희경 이광룡 이충길	안수진 고찬하 정여름 하라영 한유비 한현지
	강태영 김태희 임준성	
기술감독 김무석	의상팀 박효진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무대감독 김태연	소품팀 최혜림 김시은	프로듀서 김철순 김훈일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분장팀 임이윤 전진영 고헤진	제작진행 박근희
조명감독·오퍼레이터 임수연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이병석	영문 자막 제작·운영 김건	제작 (재)국립극단
의상감독 박지수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사무국장 오현실
	홍보 이정현 최윤영	
	마케팅 김태은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송이	
	청년인턴 노소연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꿈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김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욱 시설·운영·공사 |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김철순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프로듀서 | 박소영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웅성 팀장 | 최윤영 이정현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 노소연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박지수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이브 | 홍혜림 청년인턴 | 박설아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최은수 연구개발 |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강현우

〈파우스트 엔딩〉
〈사랑 II〉
[창작공감: 연출]

고애리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로드킬 인 더 씨어터〉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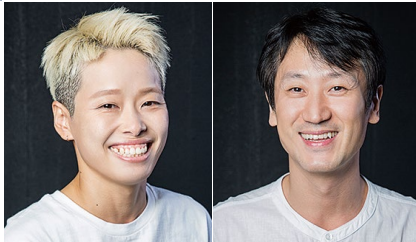


김보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세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권은혜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작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명기

〈X의 비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김예림

〈X의 비극〉
〈사랑 II〉
〈만선〉

함께합니다.



박용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엔젤스 인 아메리카〉



문예주

〈X의 비극〉
〈SWEAT 스위트〉
〈로드킬 인 더 씨어터〉

박소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송석근

〈X의 비극〉
〈SWEAT 스위트〉
〈만선〉

이상홍

〈X의 비극〉
〈만선〉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이원준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이유진

〈X의 비극〉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공연안내
2021

파우스트 엔딩

2.26.-3.28.

원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재창작 연출 조광화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4.9.-5.9.

원작 기군상
각색 연출 고선웅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 마디

중극화와
난독공연

5.12.-5.16.

원작 류진원 각색 모우선
연출 윤시중

장 공의 체면

중극화와
난독공연

5.12.-5.16.

작 원광이
연출 이준우

진중자

중극화와
난독공연

5.12.-5.16.

작 왕원재 창본작가 작창 이자람
연출 박지혜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6.18.-7.18.

작 린 노티지
연출 안경모

만선

9.3.-9.19.

작 천송제 윤재 윤미현
연출 심재찬

SPAF 초청공연 1

10.4.-10.10.

미정

로드킬 인 더 씨어터

10.22.-11.14.

작 연출 구지혜

엔젤스 인 아메리카

11.26.-12.26.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및 소극장 판

X의 비극

3.12.-4.4.

소극장 판

작 이유진
연출 윤혜진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ETUP
202

4.16.-5.10.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박상영 각색 김연재
연출 임지민

액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4.16.-4.25.

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SETUP
202

5.1.-5.10.

소극장 판

작 연출 정진세

당글매다

SETUP
202

5.1.-5.2.

5.8.-5.9.

서계동 야외마당

구성 EASThug
연출 고동욱

소년이그랬다

5.21.-6.13.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톨 라이코스 & 스테포 난부
극본 한현주 연출 남인우

사랑 II LIEBE II

6.23.-7.18.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연출 박본

SPAF 초청공연 2

10.4.-10.10.

백성희장민호극장

미정

청소년극

제목 미정

10.29.-11.21.

백성희장민호극장

미정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연 예매 개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터파크**
명동 북앤샵

02-6004-7391

- 도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BISTRO 수방.

02-3789-8679

- 호텔28 레스토랑 '비스트로 수방' 10% 할인



오설록

02-774-5460

티하우스 명동점

- 전체 메뉴 10% 할인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휴문의 02-3279-2278 www.ntck.or.kr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사랑 II LIEBE II

작·연출. 박본 Park Bonn



번역·드라마투르기 이단비

미술 누스바우머 줄리아 Nussbaumer Julia

음악 뢰슬러 벤 Roessler Ben

안무 이경진

음향 김병수

출연

강현우 김예림

박소연 이윤희

2021. 6. 23. - 7. 18.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



SHINSEGAE
신성개
푸른터렛

국립극단 1644-2003

창작공감 ∞ 희곡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곡을 찾습니다!

bb 창작희곡과 작가들을
만나는 열린 창구 99
창작공감 ∞ 희곡

STEP 1. 온라인 투고

STEP 2.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STEP 3. 쇼케이스 제작

- 경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 희곡은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합니다.
 - 낭독회와 쇼케이스는 접수된 작품 중 선정작에 한해 진행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난 내 일을 좋아했어. 잘했고, 근데 내 다릴 봐! 남은 게 이거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